

##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가뭄 심화에 "총력 대응"

✎ 성낙성 기자 | ㉠ 승인 2026.08.23 19:19

임시 양수기 가동·물절약 캠페인 병행



농어촌성주지사에서 가뭄 극복을 위해 양수기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있다,사진=성주지사 제공

| 성주=한스경제 성낙성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주지사에 따르면 최근 성주 지역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강수량으로 관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공사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가뭄 비상대책상황실을 가동, 가용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공사는 특히 용수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양수기를 설치해 인근 하천수를 끌어올리는 등 추가 수원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용수 손실을 막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물절약 홍보 캠페인도 함께 벌이고 있다. 시·군청과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에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내걸어 물절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장규석 성주지사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용수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임시 양수기 가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가에 물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도 논물 가두기, 물꼬 관리 등 물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낙성 기자** news7975@sporbiz.co.kr